

불교생활의례 대중화 '청신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지난 11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배관성 케레스타 대표가 초대 이사장 소임을 맡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불교식 생활의례가 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생활에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교사상에 입각한 현대적인 생활의례를 연구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불교생활의례 연구 및 매뉴얼화 △불교생활의례 전문가 양성 △불교계 및 대사회 봉사활동 전개 △다문화가정 돌봄사업 등을 전개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은 전명신 국악연구소장의 노래 및 대금연주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 및 치사, 축사, 임원소개, 원기전달, 비전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11월25일, 불교생활의례문화원 개원 배관성씨 초대이사장...전문가도 양성

배관성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유교적 생활의례를 불교식 생활의례로 보급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문화원은 향후 2000만 불자 모두가 생활의례를 불교식 생활의례로 진행할 수



지난 11월25일 열린 불교생활의례문화원 개원식 모습.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은 치사에서 "문화원의 생활의례 봉사요원들이 주축이 돼 불교식 생활의례가 불자들의 생활에 정착돼 잊혀져 가는 상부상조 정신이 함양돼 생활공동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펼쳐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은 손안식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문화원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을 더욱 더 연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불자들의 실생활에 불교정신과 불교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분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 불교생활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중국 종교 지도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는 뒤, 방문 선물로 미륵반가사유상을 전달하는 모습.

김형주 기자 coojoo@bulgyo.com

한·중 종교교류 활성화 논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종교지도자 예방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1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중국 5대종교 지도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날 예방에는 부신위 단장(중국종교평화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도교 등 중국종교평화위원회 지도자 및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30여 분 동안 한·중 종교 교류와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임에도 분쟁 없이 종교간 화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종교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신위 단장은 "한국불교가 종교 화합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종교교류와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도술인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은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를 언급하며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안 한·중 종교 교류와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스님)은 지난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표준법요집(상용의식편) 편찬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포교연구실장 동성스님이 '표준법요집해제'를 주제로 기초발제했으며 한글법요집 편찬연구위원인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가 '표준법요집과 의례구조'를, 이도훈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상용의식 한글화 편찬공청회 개최

포교원, 11월25일

'한글화의 원칙과 실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포교원장 현진스님과 명상문화연구원장 현종스님, 신구탁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호성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새로운 표준법요집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한글의식 시연에서는 한글법요집 편찬연구위원인 아산작법학교장 인묵스님과 어산작법학교 교수 범안스님 등이 상당 불공 중 유지와 청사, 가영, 현좌진인, 예참공양, 보례진인, 천수경 전만부, 축원 등을 30분정도 선보였다.

박인택 기자

법계위원장에 고산스님

11월27일, 법계위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지난 11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원로위원 고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위원장 고산스님(사진)은 "연장자가 계신데 이렇게 위원장 직책을 맡게 돼 송구하다"며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간사는 해인총림 울주 종진스님이 계속 맡기로 했다. 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환 심의와 각종 위



원회 구성, 법계법 및 법계법 시행령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위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해 보성스님, 종진스님, 지성스님, 무관스님 등 5명의 법계위원이 참석했다. 법계위원회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인 법계(法階) 품서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장영섭 기자

통도사울주에 해남스님 임명 계단위원회...신임위원도 위촉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고산스님·전계대화상)는 지난 11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7회 회의를 열고 영축총림 통도사 울주에 해남스님을 임명했다. 해남스님은 1967년 대각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범어사

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중앙승가대 교수를 비롯해 해인사, 범주사,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과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통도사 울주 소임을 맡아오다, 율원령에 따른 공식 절차를 밟아 이번에 임명됐다. 아울러 계단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현스님 지운스님 도일스님 덕문스님을 신임 계단위원으로 위촉했다. 장영섭 기자 fue1@bulgyo.com

운문사 자경스님, 대상 선정

교육원, 학인논문공모전 결과발표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전국 승가대학 학인 논문공모전 대상에 운문사 승가대학 자경스님이 선정됐다.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은 지난 11월23일 학인논문공모전 심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동학사 선호스님이, 우수상에는 해인사 범선·현산스님이, 장려상에는 원결(해인사)·이진(운문사)·일운(해인사)스님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인스님들의 학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논문공모전은 전국 각지 승가대학에서 모두 20편이 응모됐다. 올해 접수된 논문들은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주제가 많아졌다라는 특징을 보였다. 대체로 큰 차이는 없지만 포교분야 주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행분야로 나타나 학인스님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자경스님은 '임종의례 문화와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논술했다. 자경스님의 논문은 웰빙을 넘어 웰다잉이 각광 받는 시대 속에서 현재 한국불교가 제대로

된 임종의례 표준의식집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초기 경전을 통해 부처님이 웰다잉 사상가능성을 밝히면서 한국불교에는 불교적 죽음문화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속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의한 불교적인 죽음을 정립해야 불교도로서 진정한 삶의 화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교 임종의례문화와 정립을 위해서는 △불교도의 정체성 확립 △불교적 웰다잉 문화운동 △차별화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연구 △다양한 불교 임종의례 개발 △불교 임종의례 관련 인프라 구축 △불교 일생의례의 표준화와 생활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모전 대상에는 표창패와 장학금 25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은 15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의 상금이 각각 포상된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현장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전해진 성금

지난 11월20일 서초경찰서 법당 개원 9주년 기념법회가 시작되기 전 한 시각장애인이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강당으로 들어왔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경찰서 행사에 '왜 시각장애인이 초청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법회가 진행되면서 곧 풀렸다. 해광시각장애인복지회장 김부봉 씨가 호명되고, 서초경찰서 경승실장인 범안스님이 그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스님께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김 씨가 연신 스님의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

스님은 12년 전부터 시작된 장애인 수행도량 해광정사 불사가 지금 난으로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기부불사에 이어 이번에 장판불사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회사한 것이다. 스님은 "액수와 상관없이 추위에라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나정 기자 muse724@bulgyo.com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귀의 삼보합니다.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1만2천여 사부대중의 동참과 성원에 힘입어 원만히 봉행되었습니다. 이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에게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본 대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명: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 참여대상: 포교결집대회 참가 대중
- 공모기록물: 1) 사진, 동영상, UCC 등 대회 참가과정 및 대회 현장의 모든 기록물
2) 참가후기: 원고지 10매 내외 분량의 원고 파일 또는 출력물
3) 제출 기록물은 1인당 총 3편 이하로 제한합니다.
- 접수기간: 2009년 11월 30일부터 ~ 12월 11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1) 참가신청서(별첨양식)
2) 인터넷: 웹하드(www.webhard.co.kr) ID: pogyowon1 비밀번호: 1111 <GUEST 폴더 → 올리기전용 →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폴더>에 제출
3) 우편: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공모전 담당자(우110-170)
4) 문의 전화: 02-2011-1900
- 시상내역: •대상 - 1편(50만원) •우수상: 3편(각 20만원) •참가상: 다수(문화상품권)
- 입상자 발표: 불기2553(2009)년 1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모전 공지사항 또는 웹하드 내리기전용 폴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 이용 시 본인 이름의 폴더를 만든 후 신청서와 함께 기록물을 올립니다.
- 우편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 기록물을 제출하여 입상한 후 필요할 경우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포교원에 있습니다.

불기2553(2009)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해 총

손을 제외한 신체의 침·뜸은 위험하오니 절대주의 하세요!!

[最新 手指鍼] 친생명의학의 건강혁명! 서금요법!

최신 수지침

올바른 건강법을 연구해야 올바른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수지침의 창시자 서금요법의 개발자! 유태우 박사의 수지침연구, 37년간의 최신 연구 결정판!!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의 각종 이론과 과학적인 새로운 방법과 각종 기구들, 처방들, 건강을 혁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생인명의 처방과 각종 증상별 처방들이 있습니다.

손을 제외한 신체의 침·뜸은 교감신경 긴장과 항진으로 매우 위험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세요. 신체의 침·뜸은 기공상 위약효과이며 실재는 위험합니다.(보건신문, 월간서금요법 참조)

본서 구입시 특별세미나 실시

고려수지침을 더욱 발전시킨 서금요법 강좌

황토서암뜸을 뜨세요



원저자 유태우, 4x6배판, 양장제본, 제1권 - 350페이지, 정가 55,000원
건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건강관리는 통증·위험·부작용이 없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서금요법은 수지침을 더욱 크게 보강한 방법으로 효과가 우수합니다. 서암침뜸·서암PEM·아류침·서암뜸·서암봉 등으로 피부에 접촉, 압박, 온열자극을 주어서 전신의 많은 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월간 서금요법, 정보는 홈페이지(www.sojichim.com) 내의 e-book 서비스를 보세요. 보건신문 02(02)718-7321~6 www.bokuennews.com (참조)

(주)고려수지침 TEL: (02)2231-3000 전화문의처: (02)2233-0841~2, 024-0512 강남 547-4456 송파 2203-3544 북부 932-2052 방배 597-4963 부천 (032)613-8202 선릉 508-1147 분당 (031)702-7983 아산 (041)549-0692 *기타 전국 160여 지회를 이용바랍니다.